



# {슈발리에의 해} 아날

## ANNALS FOR THE CHEVALIER YEAR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기념하게 될 이 희년 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분이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숙고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매월 15일에 짧은 묵상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지와 함께 받게 될 묵상 자료는 그 중 첫 번째 것입니다.

월별 묵상 자료는 안드레 마요르 MSC 신부님의 명저, [줄 슈발리에와 함께하는 15일간의 기도]의 내용을 기초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사용가능한 완성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월별 묵상 자료를 여러분 개인 및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기도와 성찰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도회의 회원들, 그리고 슈발리에 평신도 회원들과 여러분의 선교사명에 함께 하는 평신도 협력자들과도 널리 공유하시길 권유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젊은이들과 삶 안에서 성소를 식별 중인 사람들과도 이 자료를 나누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곳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합시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카리스마와 영성을 살아 갑시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하느님의 마음이 되겠다는 그분의 선교사명을 완수합시다!

슈발리에 해 아날 ANNALS FOR THE CHEVALIER YEAR 은 슈발리에 해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두 번째 - 2023년 3월



##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줄 슈발리에에는 1824년 3월 15일 리슐리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줄은 무뚝뚝하지만 친절한 사람인 장 샤를과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루이즈 오리의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는 개인 메모에서 "내가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나를 교회에 데려가 복되신 동정녀와 예수성심께 봉헌했습니다" (개인메모, 3)고 말합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미소한 원자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천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그것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성심 302).

슈발리에 신부님에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성심 329).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서...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그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그의 기도는 관상이고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안심시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미소한 원자처럼 작은 존재야... 너는 하느님의 말씀, 곧 쓰여진 말씀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삭제하시겠습니까?...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것도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리고 영원히 들릴 것입니다." (예수성심 303).

(안드레 메이어, MSC 신부님의 '줄 슈발리에와 함께 하는 15일의 기도' 중 첫째 날 기도문에서 발췌)

##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우리 시대에, 우리는 슈발리에 신부님께서 느끼신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화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고, 또한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것을 요청받습니다":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업적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시편 104, 31) ...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여...사물의 무질서한 이용을 피해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69항)

당신은 어떻습니까, 창조물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당신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을 듣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 받고 있습니까?

슈발리에 신부님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더 신경 쓰고 돌보도록 초대 받고 있습니까?





## 이달의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줄 슈발리에 MSC 신부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사랑과 당신의 성심이 어디에서나 영원히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하는 사명으로 불타는 마음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눈과 손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슈발리에 신부님처럼  
모든 피조물을 사랑 속에서 창조된 존재로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고 우리 손에 힘을 주시어  
오늘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세상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되는 우리의 선교 사명을 실현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200주년 슈발리에, MSC

선교 열정을 마음에 품은 이

1824-2024